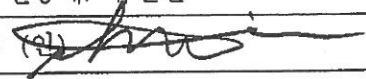


##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외국인관광 지정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03(동빙고동)
	성명	주)서울스마트 대표이사 안종태, 유철선
소개의원	신원철 의원(서대문구 제1선거구) 	
소개년월일	2017년 8월 9일	

1. 서울특별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선발 승무시키는 외국인관광택시(International Taxi) 제도를 도입 (외국인관광택시 도입방안, 시장방침 제550호. 2008. 5. 30) 하여 2017년 6월 30일 현재 외국인관광택시는 총377대가 지정되고 그 중 (주)서울스마트택시는 120대 모두 지정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2013. 7. 4 외국인전용 택시 예산지원 해명 보도 자료에서 외국인 관광택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시 영업 가능한 택시이며, 외국인전용 관광택시는 아님. 외국인관광객만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 제도도입 (2009. 5)부터 내.외국인 구별 없이 탑승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외국인관광택시로 지정된 택시의 업무범위가 한국인, 외국인 모두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와 달리 청원인 서울스마트택시 120대에 대해서만 한국인 승차금지로 탑승 시키면 불법 영업으로 고발조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업무범위 제약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 국제화시대에 한국인, 외국인을 외모와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하여 선별하고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한 다문화 가족도 승차 시킬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빈차로 정차 중 일 때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날 심야 시간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할 때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시비 승차거부로 신고 고발당하며 많은 시간을 해명하느라 고통을 받습니다. 청원인 회사에 승무 취업을 하면 외국인만 골라 태워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불만과 불이익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직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여 인종차별적인 모순적 교통행정으로 서울시민이 택시 타는데 급하고 필요할 때 서울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외모, 신분증 확인 같은 규제를 풀어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관광택시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며, 청원인 회사 업무범위를 외국인 관광택시에 지정된 모든 택시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부여하여 공정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외국인관광지정 택시 업무범위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동 청원이 매우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청원을 소개합니다.